

광주시, 일상속 AI 실증 확산... 'AI 실증도시' 선도

AI 스킨케어·심리상담·보행안전 등 시민생활 밀접 실증 활발 공공공간 3300여 개소 개방... 혁신기술 실증 지원체계 앞장 시민 체험하는 실증데이터 제품에 반영해 기업 경쟁력 강화

광주시가 일상 속에서 시민이 손쉽게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실증사업을 곳곳에서 활발히 추진하며 'AI 실증도시 광주'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기술 실증을 광주 전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에 45개사와 'AI 실증' 4개사를 선정하며 이어 22개사와 함께 다양한 실증장소를 연계한 실증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도시 전체가 혁신기술의 시험무대가 돼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화 단계의 실증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심 내 공원, 공공청사 등 공공 실증지원 3300여 곳을 확보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 기반 도시문제 해결과 창업기업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연 3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AI 실증도시 광주'

브랜드를 공고히 하고 있다.

주요 실증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맞춤형 스킨케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심리상담 ▲인공지능(AI) 감지센서 활용 어린이 보행자 안전지킴이 ▲자전거도로 인공지능(AI) 안전관리시스템 등이 있다.

광주시청사 1층 열린공간은 시민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창업진흥센터 입주기업인 '닥터케이헬스케어'는 시청사 1층에서 'AI 맞춤형 스킨케어 솔루션 기기'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기는 특수 렌즈로 개인별 피부 상태를 정밀 분석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시민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지역 화장품 기업의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화장품 기업들은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해 수요자 맞춤형 제품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창업기업제품 실증 지원 사업에 선정된 '썬뷰프티저'가 개발한 '무인 인공



지능(AI) 상담실'도 시청사 1층에 설치돼 있다.

국내 최초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다중 양식(멀티모달) 감정 분석 기술이 탑재된 이 상담실은 상담자의 음성, 표정, 텍스트를 동시에 인식해 실시간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지피티(GPT) 계열 모델이 공감형 대화를 제공한다. 이 상담실은 광주과학관, 유스퀘어 등에도 설치돼 시민의 정신건강 돌봄에 기여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중심) 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안전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동구 금남로 창업캠프 입주기업 에이치인텔리전스는 '운전자·보행자 안전시스템(사각지대 스마트 아이)'을 개발해 복구 서립초등학교 어린이교통안전구역 내에서

실증 중이다. 인공지능(AI) 기반 감지센서와 대형 LED패널을 통해 실시간 교통 위험을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키고 있다.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력해 광산구 쌍암공원 부근의 자전거도로에는 'AI 안전관리 시스템'을 설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이동을 예측하고, 도로 바닥 LED 조명으로 긴급 알림을 제공하는 실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순두영 미래산업총괄관은 "광주가 추진해 온 여러 인공지능(AI) 사업들이 시민들 생활에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실증사업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각종 기술들이 시민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환경을 지속해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영길 기자

광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축제 연다 21~24일 시청 시민홀서 제22회 건축도시문화제 개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재)광주건축단체연합회와 함께 21일부터 24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제2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개최한다. 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건축학회 등 지역 건축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건축을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축전문가 간 교류의 장 마련해 지역 건축문화의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올해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건축 시간과 공간-건축으로 연결하는 도시'를 주제로, 도시의 기본 요소인 건축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도시의 역사와 공간을 만들어가는 의미를 조명한다.

행사 기간에는 ▲제29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우수건축가 작품전 등 다채로운 건축 작품도 전시된다. 또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그림그리기 사생대회 수상작 전시, 사진공모전 입상작, 국내외 우수건축가의 작품과 모형 전시 등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대학 건축학



전공 학생들이 선보이는 우수작품 전시를 통해 미래 건축문화의 방향성과 창의적 비전을 만나 볼 수 있다.

'건축민원 상담코너'가 운영돼 시민들이 건축 관련 민원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광주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우수 건축자산 건축물도 함께 전시된다.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이번 문화제가 시민·전문가가 함께 소통하는 건축문화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축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전남도, 전국 최초 해상풍력 설치항만 구축 투자협약

에너지 앵커기업 LS 유치로 해상풍력산업 도약 전환점

전라남도는 2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국내 전산업계 1위 기업 ㈜LS전선의 자회사인 ㈜LS머트리얼즈, ㈜LS마린솔루션과 해상풍력 전용 설치항만 조성, 케이블 설치선 건조 등을 위한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LS전선의 구분규 대표이사, 이상호 재경구매본부장/CFO, 홍영호 ㈜LS머트리얼즈 대표이사, 김병욱 ㈜LS마린솔루션 대표이사, 명현관 해남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는 LS그룹의 전남 첫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다.

정부 주도 SK·오픈AI의 서남권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연계해 전력 다소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전남도가 추진 중인 '30GW 해상풍력 발전단지' 목표 달성에 실질적 동력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해남에 '한국형 에스비에르항'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LS

전선 계열의 제조·설치 역량을 중심으로 자회사 단계적 이전과 신규 투자, 연관기업 입주가 맞물릴 경우, 해남 'LS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덴마크 에스비에르항(해상풍력 모듈 설치항만·200여 기업 집적·2022년 매출 45조 9천만 원)과 같은 지역 산업생태계 전환 효과가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LS머트리얼즈는 해남에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항만'을 구축·운영한다. 이 거점은 발전기 모듈(WTG) 조립·보관·선적 기능을 갖추고, 향후 하부구조물·타워 등 대형 기자재 기업의 연쇄유입을 견인해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 전진기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LS마린솔루션은 장거리·대수심 환경에서 HVDC와 광케이블을 동시 포설할 수 있는 국내 최대 해저 케이블 설치선을 건조, 해남 설치항만을 거점으로 운영한다.

이번 협약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정부 역점사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정부 사업의 속도감을 더하고, 첨단산업 유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의 적극적인 전남 투자 지원 정책이 탄력을 받도록 전남도 자체적으로 LS라는 에너지 앵커기업 유치를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협약은 전남이 해상풍력산업 중심지로 도약하

기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수출용 김 생산기업 3개사와 1천34억 원, 글로벌 유통기업 코스트코와 1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하는 등 AI 데이터센터·K-김·코스트코에서 해상풍력에 이르기까지 '투자의 봄'이 이어가고 있다. /신종팔 기자

전남도, 미국 LA서 기업 유치 투자설명회

투자 환경·스타트업 육성계획·지원사업 등 집중 홍보

전라남도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전남도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LA지역 한인 경제계와 현지 기업인, 투자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의 투자환경과 스타트업 육성계획, 각종 기업 지원사업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경진원) 공동으로 추진하며 ▲전남도의 투자환경 및 산업 인프라 ▲첨단산업 및 K-푸드·바이오, 데이터센터 등 전략산업 육성계획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제도 등을 소개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전남도 투자유치 설명회 세션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미국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전남도는 이번 방문 기간 중 LA지역 한인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첨단 전략 산업, 식품·바이오, 정정에너지 분야의 투자 기회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전남도는 대한민국의 청정하고 자연환경과 산업단지, 글로벌 물류 인프라를 갖춘 투자 최적지"라며 "이번 LA 투자설명회를 통해 현지 기업과 투자자에게 전남의 강점을 알리고,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최근 오픈AI와 SK사의 데이터센터 구축 발표에 따라 AI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기업 유치, AI 인재 양성 등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요 해외 거점에서 현지 기관 및 한인 경제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우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